

비박계 29명 집단 탈당... 분당 선언

가칭 '개혁보수신당'

무소속 김용태 의원 합류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추대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 제1회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이 27일 "새누리당은 더이상 공당이 아니다"라며 집단 탈당, 분당을 선언했다.

탈당과 의원들이 이날 원내교섭단체를 신청할 경우 20대 국회는 원내 4당 체제로 전환된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현역 29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당을 선언했다.

1차 탈당에 참여한 의원은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근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해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대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다.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경우 신당 창당에 뜻을 같이 했으나 탈당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탈당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탈당을 선언한 29명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서울(8명), 경기·인천(6명) 등 수도권이 1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5명 ▲경남 3명 ▲대구 2명 ▲강원 2명 ▲울산 1명 ▲전북 1명 ▲충남 1명 순이었다.

무소속 김용태 의원도 27일 비박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비박 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누리당 탈당과 29인과 함께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의석수는 3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 27일 국회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논의에 나섰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의총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새 원내지도부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의총에는 탈당을 선언한 30명의 현역 의원 중 권성동, 김영우,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비례대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의총에 참석했다.

창당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쉽지 않은 길을 열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정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며 "1월24일 창당이 목표인데 국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동 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참역사적인 순간이다"며 "중대한 결심을 해준 의원들을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박계 신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27일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4선·대구 수성)을 합류의 추대했다.

주 의원은 원내대표 추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서 개혁보수신당이 빠른 시간 안에 창당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정통 보수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당은 또 정책위의장에 이종구 의원(3선·서울 강남)을,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양석(재선·서울 강북) 의원을 선임했다.

이종구 신임 정책위의장은 "여러 의원들과 정책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약도 새롭게 만들고, 여러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의원들의 뜻이 원내에 반영되도록 충실한 통로, 허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에는 재선의 장제원, 오신환 의원이 임명됐다. /뉴시스

민주당 주자들, 비박신당에 견제구... "속죄 우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27일 새누리당 비박계 29인이 집단 탈당,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해 "속죄가 우선"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호박에 줄 갖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헌정유린과 국정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친박도 비박도 모두 박근혜 정권의 공범으로, 국민에게 통렬하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혁보수신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짜갑다"며 "진정한 반성과 성찰없이 정계개편을 통한 사이버 보수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망상만 좇는다면 국민이

문재인 측 "호박에 줄 그러면 수박되나" ... 이재명 "은퇴해야" 박원순 "이념세탁" ... 안희정·김부겸 "일단 지켜보자"

결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성명에서 "새누리당 해체는 국민의 염원"이라며 "신분 세탁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김무성 전 대표 등 주요 책임자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 시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도 "남이있는 친박이든 떨어져 나오는 비박이든, 이번에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몸통이 세 포 분열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초기에는 관심이 있으니 지지율도 나오고 하겠지만 막상 다시 이 집단에 이 나라의 국가 운영을 맡길 것이나"라고 하

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친박도 정권재창출을 이야기하더니 비박신당도 일성이 대선 승리 운운하는 것에서 정권연장을 위한 이념세탁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수구보수 새누리당이든 개혁보수신당이든 대선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와 보수 가치를 지키려면 과거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보수신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은

비박신당 창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보수의 출발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특히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개 거명하며, "새로운 보수·진정한 보수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친일·색깔론·특권과 반칙의 기득권·영남 패권정치를 끝내고 자기책임성, 애국심에 기초한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개원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분들이 개혁입법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입장을 내는지 더 두고 보자"며 "개혁이라 스스로 표방했으니 그간 우리 사회를 가로 막아온 몇 가지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리하면 우리 정치권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노회찬 "조기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개헌 논의에 대해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조기 대선 전 개헌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미래 정치센터 송년식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헌은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내용과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만을 급하게 서둘러 실시하는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일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라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선 후)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까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당 문병호 "문재인 세력, 수구기득권 변질"

당 대표에 도전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 세력 자체가 수구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촛불혁명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한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며 "이는 민심이 대통령 탄핵은 국민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세력, 곧 친문 세력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당시 강남 줄부들처럼 '지금 이대로'를 외치며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그들은 국가 대개조의 첫걸음인 헌법 개혁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친문 세력은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수구기득권 세력으로 나날이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를 꼬집은 그는 '새 정치'를 강조하며 자신이 당 대표 책임자임을 부각시켰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정치는 새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며 "촛불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올라갔는데, 탄핵을 실제 주도한 국민의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추미애 "민주당 비난하는 국민의당, 버림받을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 "민약 우리 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면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야권을 분열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버림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통합하려는 유언을 남겼다. 통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말한다면가 적의 적은 동지라는 음험한 마음으로 또는 악마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당리 당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마음으로 통합을 막고 분열을 획책한다면 민주당의 회복은 더딜 것이고 정권교체는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사익에 대해서 호남이 먼저 정리를 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비난했다. /뉴시스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부안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천년의솜씨